



☉ 본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올해 예산안 6억2천여만원 승인



본회는 지난 2월 22일 경기도 분당 소재 수의 과학회관 대강당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전년대비 14.5%가 증가한 6억2천여만원의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승인했다.

또한 본회는 2005년도 축산시책 유공자 3명에 대한 농림부 장관 표창 전수에 이어 그동안 닭고기 소비확대 및 국내 계육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9명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한형석 회장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우리 국민들의 닭고기 소비량이 쇠고기를 앞질러 축산물 소비에서 2위로 올라선 것과 관련 “닭고기가 타 육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협회의 노력이 작게나마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상당히 기쁘다”며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닭고기의 우수성을 더 많이 소비자들에게 주시켜 지금은 소비량에서 두 배가 넘는 돼지고기 시장의 공략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업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의 추진으로 이는 닭고기 업계의 활로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시행되는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해 각 사별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현안문제와 관련 (주)하림 한성희 부사장은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제품 섭취후 피해를 호소하는 상습적 ‘식파라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공 제품 뿐만 아니라 생육제품도 피해가 큰 만큼 계열 화업계가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형석 회장은 “PL법 가동 이후 ‘식파라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도 해당업체로서는 이미지 실추는 물론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향후 ‘식파라치’ 관련 정보를 공유하되, 특히 이들의 리스트를 협회 차원에서 확보, 관리하면서 각 회원사에 통보도록 했다.

### 〈2006년도 포상 대상자 명단〉

구분	수상자
농림부 장관 표창	조영래 (주)키토랑 대표이사
	조남옥 (주)해마로식품 양축농가
	신동근 (주)신명 상무
협회장 표창(감사패)	김성구 농림부 축산경영과 주사
	김준걸 농림부 가축방역과 주사
협회장 표창(공로패)	조현성 (주)하림 부장
	조형상 (주)마니커 상무이사
	정대선 (주)콜센 대표이사
	윤영철 (주)동우 차장
	이완영 (주)한일농원 부장
	이상일 세계유통 대표
고재일 (주)육성 생산팀장	

제1차 이사회 및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정기총회 부의안건 심의



본회는 지난 2월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 및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총회 부의안건인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앞서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대 실적 및 수지예산 집행에 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AI 인체감염 발표로 인한 피해대책 요구  
닭고기 안전성 보도와 관련 각 언론사에 호소문 전달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에서 AI가 창궐했던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 사이 국내에서 4명의 AI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본회를 포함, 농협, 양계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시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항의 방문해 이번 발표로 양계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1,600여명의 혈청 검사를 더 실시하고 닭고기 성수기인 오는 6월에 AI 도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양계산업을 포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시비대위는 정부가 양계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장은 “시발표 등과 관련 양계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양계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함께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계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울러 시비대위에서는 각 언론사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바로 알려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를 먹어서는 AI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제위께 드립니다.

우리 170만여 양계관련 산업인 가족 모두는 다시 한 번 소중한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외국의 AI 발생을 스페인의 독감과 비교하는 등의 위험성에 대한 집중보도로 우리 양계산업은 크나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양계산물의 소비는 아직도 10% 이상 위축되어 평시 수

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양계농가와 관련 단체·업계에서는 추운 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닭고기를 먹어서는 AI에 걸리지 않는다’는 안전성을 홍보하기도 하고 닭고기를 먹고 AI에 걸리면 20억원을 책임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으며,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의 돈을 모아 TV와 신문을 통한 광고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양계농가에서도 불철주야 소독을 실시하여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한 결과 새 봄이 시작되는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보도를 접하면서 또 다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언론사에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한 예방과 방역 등의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칫 과거의 일이 현재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무척 힘들게 어려움을 헤쳐 나왔는데 다시 소비가 위축된다면 게다가 미국과 브라질로부터의 닭고기 수입이 급증하는 시점에 국내 양계산업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귀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부탁 드리옵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먹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살처분 등의 혐오스러운 보도로 소비자가 닭고기를 기피하거나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세심한 보도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2006. 2. 24

AI비상대책위원회

170만 닭·오리·계란 산업인 일동

(농협중앙회·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오리협회·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전국토종닭협회)

## 국내에서는 2004년 3월 이후 AI 발생 없어

### AI 유입 방지 위해 지속적인 방역대책 필요

농림부에서는 2003. 12~2004. 3월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당시 닭·오리 살처분에 직접 관계했던 사람 중 4명의 혈액에서 AI 항체가 확인되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2월 24일 발표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2004년 3월 시가 종식된 이후 한 건도 추가로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AI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철새, 사육하는 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 국내유입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